

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해볼까요? 힌트는 ‘행하는 믿음’ 이에요. 그쵸 참된 것을 말하고, 도둑질 하지 말며, 더러운 입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죠? 맞아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군지 배웠는데 그럼 성경은 뭐예요?”라고요. 지난 주엔 없었지만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고 왜 읽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 적혀진 것이에요. 이 말인 즉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네요. “아니 전도사님, 뭐 하나님 슬픈 영화 보셨나요? 무슨 감동이요?” 그 감동이 아니라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의 의지대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적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이나 두루마기에 적으신게 아닌 저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작성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성령님 믿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지혜가 있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읽어야 한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적게 하신거예요. 이 구절 또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준답니다.

예화1) 미국의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는거예요. 인삼차 이런거 아니고 자동차인데요. 아버지가 성경을 주면서 말씀하시길 ‘빌립보서 4:19’를 펴보라는거예요. 실망한 학생은 “아빠 미워!” 하면서 성경을 구석에다 박아 두었네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조른 고등학생은 아버지에게 “빌립보서 4:19를 읽어보아라”라는 답변만 들었네요. 그래서 어느날은 하도 답답했는지 결국 그 구절을 읽기 위해 펴보았는데요. 뭐가 나왔을까요? 뭐라도 나왔으니 제가 이 예화를 소개했겠지요? 맞아요. 바로 자동차를 뺏을 수 있는 수표 묶음이 나왔다고 해요. 빌립보서 4:19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예화를 왜 말씀드렸을까요? 위에서는 수표라고 했지만 수표보다 더 가치있고 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 안 읽으면 그거 믿는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사랑하죠? 친구들은 부모님 다 믿죠? 근데 친구들이 만약 엄마아빠 말 안들어봐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말 안 듣고 살아봐요. 많이 힘들어져요. 부모님 말 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나 학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부를 잘 못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뭘 말인지 더 잘 알거예요. 특히 수시로 가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생기부를 잘 써주시잖아요. 세상도 이런데 성경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읽어야 해요.

둘째로 성경은 세상을 성공하게 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읽어야 해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또한 다니엘 2장 20절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라고요. 그렇다면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지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중요해요. 이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지혜는 그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우리 고3 친구들처럼 입시를 해본지 얼마 안되어서 잘 알아요. 항상 기도로 원서 접수의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결국엔 잘 된 것 같아 기쁘더라고요. 아무튼 지혜는 입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라고 하고 있네요. 이처럼 성경에선 지혜로운 자가 곧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한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나를 질문이나 문제는 로마서와 잠언에서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도 알고 하나님의 사역도 알고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커서 뭐가 되고 싶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거 같아요. 하나님 제발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예화2) 옛날 백화점 왕이라 불리우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한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데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내가 11살 때 투자한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나는 2달러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 한권을 구매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투자였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줬으니까요.” 그러더니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럼 회장님 성경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 삶을 살아야지요. 성경에 나온대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성공은 어느새 제 앞에 있었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성공하게 하는 척도랍니다. 이것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시면 공부자극 영상 같은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기부여 영상도요. 그런 자극 영상들에 나오는 명언이나 조언 등이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영상은 어떤 대머리 선생님이 나와서 “그리하여~ 공부가 어찌구~ 저찌구~”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두 합쳐서 완벽할 정도로 조언한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 마저도 잘 몰라요. 오로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분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로 친구들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해요.

예화3) 이태리 시실섬 입니다. 어떤 전도사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데요. 가지고 있던 돈은다 빼앗기고 소지품은 모조리 불속에 넣으라고 하더래요. 전도자는 소지품을 모두다 불속에 넣을 수가 있었지만 성경책만은 넣을 수가 없었다네요.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이 책을 불속에 넣겠는데 당신은 여기에 무슨 말이 기록 되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소? 내가 한 두 마디만 읽고 불속에 넣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좋다"고 대답했어요. 전도자가 성경을 펼치니 시편 23편이 나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도 앞에서 열심히 읽어가니 강도는 "아하! 그것 참 좋구먼! 그 책은 여기다 놓으시지." 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5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이번에도 "아하! 그것도 좋구려, 그것도 여기 놓으시지?" 하고 나서 강도는 그 성경책을 싸가지고 날렵하게 사라졌어요.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 한분이 전도자를 찾아 왔다. "날 기억하시나요?" "아뇨?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수년전 강도를 만나서 돈과 성경을 빼앗겼던 일은 기억하시나요?" "예 그 사실은 기억 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으면서 "내, 내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전도자님의 물건 속에 주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읽기 시작한 후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신학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성경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래요. 성경은 생명력이 있고 강도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정도로 큰 힘을 가졌답니다.

아무리 고민을 부모님, 친구,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한계가 있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냥 만화책 읽듯, 무슨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보듯이 보면 될까요? 그러면 안되어요. 독서의 방법을 소개할 때 단지 많이 읽어라, 일단 읽어라 라고 해요. 그렇게 읽으면 안되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반 성경이 어렵다면 쉬운 말 성경을 시작으로 읽어보세요. 그것도 힘들면 설교에 집중해보세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읽는 것이 힘들면 최소한 설교 말씀에라도 집중해야 해요. 대충 읽지 마세요. 앞뒤 관계를 따져가면서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난 무엇을 했을까? 뒤의 내용은 무엇이 나올까? 난 이 말씀을 읽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구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 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가며 읽어보세요. 결국 한번 읽고 두 번 읽다보면 성경이 보이고요, 성경의 참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요, 둘째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읽을 때는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보는 거예요.(성경필사) 너무 어려우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꼭 물어보세요. 꼭 성경을 읽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적용까지 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 성령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음이요,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줍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고민과 걱정 등을 성경에서 풀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화책 읽듯, 인스타 릴스 보듯 보지말고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노원주사랑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웁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